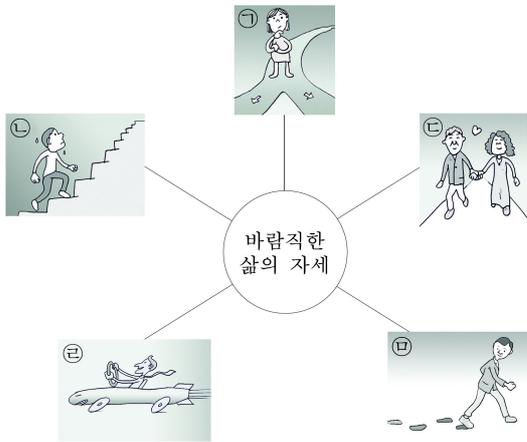


7.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해 그림을 보며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우리는 동시에 두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 ② ㉡ : 인생은 돌층계와 같다. 비록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한 계단씩 천천히 밟고 올라가야 한다.
- ③ ㉢ : 긴 인생길에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끝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
- ④ ㉣ : 무작정 빨리 가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주변을 둘러볼 줄 아는 여유를 지녀야 한다.
- ⑤ ㉤ :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성공을 꿈꾼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강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8. 수업 시간에 공익 광고를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가)에 들어갈 광고 문구 중, <보기>의 표현법을 가장 잘 살린 것은?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가)

- < 보 기 >
- 산에는 꽃이 피고 하늘에는 새가 나뉜.
 -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은 간 데 없다.

- ① 기회만 주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 ② 장애인이라서 경계를 이끌어 가는 당연한 일뿐입니다.
- ③ 색안경 끼고 장애인만 보지 말고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세요.
- ④ 편견을 가지면 장애인만 보이지만 편견을 버리면 능력이 보입니다.
- ⑤ 일어설 수 없는 그들에게 사랑을 준다면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9. <보기>의 (가)와 (나)를 활용하여 '올바른 독서 방법'에 대한 글쓰기 계획을 구상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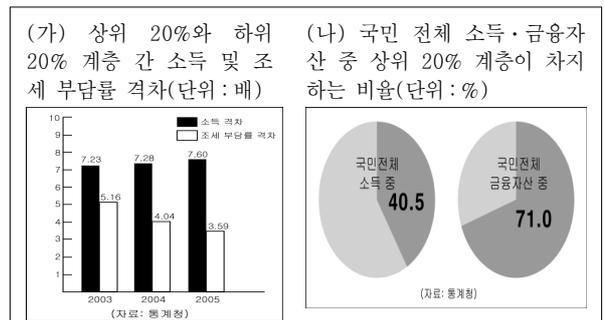
< 보 기 >

<p>(가)</p> <p>물방울이 계속 떨어집니다.</p> <p>오랜 세월이 흐른 후...</p>	<p>(나)</p> <p>아동기의 식생활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 아이들의 영양 부족은 신체 발육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특정 음식에 대한 혐오나 거부하는 아동의 성격뿐만 아니라 평생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신문</p>
--	--

<p>(가)</p> <p>물방울이 한 곳에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는다.</p> <p>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지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 --- ㉠</p> <p>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지 않고 책을 읽는 태도를 개선하는 데 적용한다. --- ㉡</p>	<p>자료 해석</p> <p>↓</p> <p>의미 추출</p> <p>↓</p> <p>적용 대상 모색</p>	<p>(나)</p> <p>영양 섭취가 고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친다. --- ㉢</p> <p>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를 지녀야 한다. --- ㉣</p> <p>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을 골라 읽는 태도를 개선하는 데 적용한다. --- ㉤</p>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정부 기관을 예상 독자로, '빈부 격차 문제'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모둠 토의를 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보고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3.4%로 가장 많았다.

- ○○일보

- ① 상·하위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글을 시작하면 좋겠어.

- ② 조세 부담률 격차가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야겠어.
- ③ 금융자산 비율의 격차가 매우 크므로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 ④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곤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어.
- ⑤ 빈곤층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복지 서비스 확대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면 좋겠어.

11. <보기>와 같이 '인터넷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의 수정·보완 및 자료 제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I. 서론
- 사이버 범죄의 급격한 증가 -- ㉠
- 유해 정보의 범람

II. 본론
1. 인터넷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 사이버 범죄의 예방과 대처
- 올바른 사용 자세 배양 ---- ㉡
- 사이버 시민 의식의 고양

2. 인터넷 미디어 교육의 장애 요소
-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 컴퓨터 이용 기술에 치우친 교육
-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3. 인터넷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
- 불건전 정보의 올바른 이해 --㉣
- 사이버 윤리 및 예절 교육의 강화
- [] ㉤

III. 결론
- 인터넷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 강조

㉠: 사이버 범죄의 실태를 통계 수치로 제시한다.

㉡: 인터넷에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여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 일반인들과 정부 당국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지적한다.

㉣: 'II-2'를 고려하여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규제 강화'로 수정한다.

㉤: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보기>는 어느 학생이 쓴 수필의 초고이다. ㉠~㉤을 고쳐 쓰기 위해 제시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며칠 전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오자 승객들은 모두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일제히 들렸다. 세 명의 청년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 세 명의 청년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지하철까지 이어지던 연말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졌다.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던 이들은 입을 다물었고, 어떤 이들은 눈을 지그시 감았고 또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였다. ㉢ 그 줄에는 여전히 떠드는 사람도 있었다. 이윽고 연주가 끝나자 지하철 안에 있던 승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 약속조차 라도 한 듯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음악은 지하철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 바뀌어 놓았다.

- ① ㉠에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졌으므로 '들렸다' 앞에 '고개를'을 넣어야겠어.
- ② ㉡은 앞부분의 내용을 반복한 것이므로 '그러자'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 ③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은 조사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약속마저도'로 고쳐야겠어.
- ⑤ ㉤은 목적어가 있으므로 '바꾸어'로 고쳐야겠어.

13. 문맥에 맞는 어휘를 바르게 선택하지 못한 것은? [1점]

- ① 비로 인해 출발 날짜가 내일로 (변경)/변형되었다.
- ② 그녀는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발견)/발굴하였다.
- ③ 그녀의 연설은 청중의 뜨거운 (부응)/호응을 불러일으켰다.
- ④ 그는 고개를 끄덕여 처녀에게 (동조)/방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 ⑤ 그는 다른 사람과 상의 없이 (독선)/독단으로 일을 처리했다.

14.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 <학생의 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예) 해숙하다(×) → 해숙하다(○) 으뜸(×) → 으뜸(○)

2. 'ㄴ, ㄹ, ㄱ,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예) 산뜻하다(×) → 산뜻하다(○) 담복(×) → 담뿍(○)

3. 다만,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쭈(×) → 국수(○) 갑짜기(×) → 갑자기(○)

<학생의 글 >

㉠ 아이는 옷을 거꾸로 입었다.
㉡ 소녀는 부끄러운지 얼굴을 살짝 붉혔다.
㉢ 그는 잘 익은 깍뚜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 그 사람은 도박으로 재산을 몽땅 날리고 말았다.
㉤ 어머니께서는 가위로 옷감을 씩둑 자르셨다.

- ① ㉠의 '거꾸로'는 제5항-1의 규정에 따른 올바른 표기입니다.
- ② ㉡의 '살짝'은 제5항-2의 규정에 따라 '살작'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③ ㉢의 '깍뚜기'는 제5항-3의 규정에 따라 '깍뚜기'로 고쳐야 합니다.
- ④ ㉣의 '몽땅'을 '몽당'으로 표기하면 제5항-2의 규정에 어긋납니다.
- ⑤ ㉤의 '씩둑'은 제5항-3의 규정에 따른 올바른 표기입니다.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애
이 한밤 소리 없이 훑날리느뇨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 가며
서글픈 옛 자취 양 흰 눈이 내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애
싸늘한 추회(追悔) 이리 가쁘게 설레느뇨

㉢ 한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 내리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 김광균, 「설야」 -

(나) 어이할꺼나

아-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남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졌어라!

천지엔 이제 꽃잎이 지고
새로운 녹음이 다시 돌아나
또 한번 나-ㄴ 에워싸는데

㉣ 못 견디게 서러운 몸짓을 하며
붉은 꽃잎은 떨어져나려
펄펄펄 떨어져나려

신라가시내의 숨결과 같은
신라가시내의 머리털 같은
풀밭에 바람 속에 떨어져나려

올해도 내 앞에 훑날리는데
부르르 떨며 훑날리는데.....

아-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 피끄리처럼 울지도 못할
기찬 사랑을 혼자서 가졌어라

- 서정주, 「신록」 -

(다) ㉥ 正月(정월)스 나릿뜨른 아으 어저 녹져 호논딤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호올로 널셔
아으 動動다리

二月(이월)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스 불 다호라

㉥ 萬人(만인)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삼월) 나며 開(개)호 아으 滿春(만춘) 들릿고지어
느미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 四月(사월) 아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녹사)니몬 벳 나를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 작자 미상, 「동동」 -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외적 상황을 묘사한 다음 화자의 감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시간 경과에 따른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가 시상의 바탕에 깔려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어조의 전환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의미를 탐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세상의 여러 사물 중에서 불꽃은 몽상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영상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지속되는 불꽃 앞에서는 깊이 잠들기 어려우며, 몽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과거의 추억을 되살려 준다.

- ① 몽상이 지니는 심리적 특성을 참고한다면, 마음 허공에 켜진 등불은 시적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불꽃을 지속시키는 시간적 흐름의 맥락에서 볼 때, 화자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등불은 연속되는 삶의 흐름과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빛을 비추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하는 불꽃의 특성을 참고한다면, 마음에 켜진 등불로 인해 시적 화자의 고립감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불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등불을 켜므로써 시적 화자는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깨닫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불꽃이 지니는 몽상적 이미지를 고려해 볼 때, 마음에 등불을 켜는 행위는 시적 화자가 내면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7. (나)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문형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의태어의 반복 사용을 통해 시적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 ④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인상을 선명하게 하고 있다.
- ⑤ 시구의 반복과 변주(變奏)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18. (다)의 ㉠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_____ < 보 기 > _____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은 님도 탕겠지

님은 안 타도 편지야 탕겠지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님이 오시면 이 설움도 풀리지
동지 선달에 얼었던 강물도

제멋에 녹는데 왜 아니 풀릴까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 김동환, 「강이 풀리면」 -

- ① ㉠과 <보기>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다.
- ② ㉠과 <보기> 모두 강물이 얼었다 풀리는 상황과 시적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고 있다.
- ③ ㉠에는 <보기>와 달리 대립된 욕망으로 인한 시적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 ④ ㉠과 달리 <보기>에는 임을 향한 시적 화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과 달리 <보기>에서는 연쇄적 시상 전개를 통해 시적 화자의 심정이 강조되고 있다.

19. ㉠을 활용하여 시를 창작해 보았다. <보기>의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킨 것은?

_____ < 보 기 > _____

- ㉠의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살린다.
- ㉠의 '곳고리새'와 시적 기능이 유사한 시어를 포함시킨다.
-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① 작년 오늘 이 문 안에서
그대와 복사꽃이 서로 붉게 빛났지
복사꽃은 여전히 봄바람에 미소 짓는데
그대 간 곳은 알 수 없구나

- ② 내 살던 곳은 서쪽에서 또 서쪽
해마다 앵무새 울었네
지금은 앵무새 우는 곳에 살지 않지만
앵무새는 여전히 그곳에서 우네
- ③ 연못에는 난초 향기 가득한데
꺾은들 누구에게 보내나
마음은 간절한데 알아주는 이 없어
슬픔 속에 늙어가는구나
- ④ 약속을 해놓고 님은 어찌 안 오시나
뜨락의 매화꽃은 다 저 가는데
갑자기 가지 위의 까치소리 듣고는
부질없이 거울 앞에 눈썹 그리네
- ⑤ 지금 사람은 옛 달을 볼 수 없지만
오늘 이 달은 옛사람들을 비추었지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함께 달을 보고 있네

2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대상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 대립되는 시어를 병치하고 있다.
- ③ ㉢ : 시적 화자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
- ④ ㉠ : 비교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 :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지력과 이성을 가진 존재이다. 하지만 오늘날, 인간이 그러한 명칭에 어울리는 존재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대량 살상이 세계 도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동물들 중에서 유독 인간만이 자신의 종족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점과 관련하여 로렌츠의 진단과 처방은 주목할 만하다. 조건화된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는 스키너와 같은 행동주의와는 달리, 그는 동물 행동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을 진화의 과정을 거친 동물의 하나로 보는 그는, 공격성은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의 하나이기에, 인간에게도 자신의 종족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생득적인 충동이 있다는 것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단합된 형태로 공격성을 띤 종족이 생존에 유리했으며, 이것이 인간이 호전성에 대한 열광을 갖게 된 이유라고 로렌츠는 설명한다.

로렌츠의 관찰에 따르면 치명적인 발톱이나 이빨을 가진 동물들이 같은 종의 구성원을 죽이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 중무장한 동물의 경우 그들의 자체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 종에 대한 공격을 제어할 억제 메커니즘이 필요했었고, 그것이 진화의 과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로렌츠는 설명한다. 그에 비해서

인간을 비롯한 신체적으로 미약한 힘을 지닌 동물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자기 종을 죽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억제 메커니즘에 대한 진화론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상상 능력을 지니게 되었고, 억제 메커니즘을 지니지 못한 인간에게 내재된 공격성은 자기 종을 살육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에 내재된 공격성을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로렌스는 회의적이다. 우선 인간의 공격적인 본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해서 오늘날 인류를 있게 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에 이를 제거한다는 것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으며, 또 공격성을 최대한 억제시킨다고 해도 공격성의 본능은 여전히 ㉠ 배출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인류에게 희망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렌스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그는 이성인 인간의 공격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으나, 공격성의 본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 첫째 방안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인간의 공격성의 본질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방향을 수정하는 이성적 단계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그는 타고난 공격성의 배출구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중요성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쟁을 허용함으로써 호전적 열광을 충족시킬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공격성의 대상이 될 만한 개인들이나 다른 집단과의 우정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젊은 세대들이 몸 바쳐 봉사할 가치가 있는 진정한 대의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처방을 통해 로렌스는 인간의 공격성이 초래할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21. 위 글의 내용을 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설명해 보았다. 잘못된 것은? [1점]

억제 메커니즘 살상 능력	없음	있음
큼	[A]	[B]
미약함	[C]	[D]

- ① 기술이 발달한 이후의 인간은 [A]에 해당한다.
- ② 치명적인 발톱이나 이빨을 가진 동물들은 [B]에 해당한다.
- ③ 기술이 발달하기 전의 인간은 [C]에 해당한다.
- ④ 신체적으로 미약한 힘을 지닌 동물들은 [D]에 해당한다.
- ⑤ 일반적인 진화의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B]와 [C]이다.

22. 위 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본능에 대한 상이한 이론을 대비하며 소개한다.
- ② 인간의 이성에 대한 특정 이론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다.
- ③ 인간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소개한다.
- ④ 인간의 과거 생존 방식과 현재 생존 방식의 차이점을 밝힌다.
- ⑤ 인간의 행태에 대한 이론을 확대 적용하여 동물의 세계를 설명한다.

23. 위 글의 논지를 바탕으로 <보기>의 영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태엽 오렌지」는 인간의 공격성과 관련지어 흥미해 볼 만한 영화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 알렉스는 폭력적 성향의 인물로, 길거리의 노인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폭행을 일삼는다. 그러다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그는 그곳의 강압적 교정 기술에 의해 ‘착한 인간’이 된다. 그 후 그는 나쁜 생각만 해도 구토를 하고 심한 고통을 느낀다. 사회로 돌아온 후 자신의 몸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그는 절망 끝에 자살을 기도한다.

- ① 인간의 공격성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공격성의 원천인 사회 환경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주인공만을 교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문제야.
- ③ 주인공이 헌신할 가치가 있는 대의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더라면 비극적인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 ④ 주인공이 다른 모험적인 일이나 경쟁적인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폭력적인 공격 충동을 해소했다더라면 좋았을 걸.
- 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간의 공격적인 본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더라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24. ㉠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늑대는 목덜미를 자신의 이빨에 들이대며 복종의 의사를 표현하는 다른 늑대를 죽을 정도로는 물지 않는다.
- ② 호랑이는 소변이나 대변을 배설하여 자신의 영토를 표시하고 이를 통해 다른 맹수에게 경고를 보낸다.
- ③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 사자들의 맹렬한 싸움은 종족 보존에 유리한 2세를 얻는다는 순기능이 있다.
- ④ 비둘기는 새장에 갇혀 도망갈 수 없는 상대 비둘기를 죽도록 쫓아대는 행위를 하곤 한다.
- ⑤ 까마귀는 낮 동안에 고양이에게 눈에 띄기만 하면 떼를 지어 공격해서 멀리 쫓아버린다.

25. <보기>를 참고할 때, 단어의 구조가 ㉠과 다른 것은? [1점]

< 보 기 >

‘배출구’는 ‘배출’과 ‘구’가 합쳐진 단어로써, ‘기능 + 장치’의 의미 구조를 지닌다.

- ① 소형차
- ② 탈수기
- ③ 조명등
- ④ 반사경
- ⑤ 소각로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대 사회에서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동의 주된 내용인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시장 기구를 통한 시장적 의사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 기구를 통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 한가지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거나 이들은 저절로 조화되는 제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둘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부터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은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구성원들은 자신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똑같은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한다. 즉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와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적 의사 결정에서는 자신의 경제력에 비례하여 차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하며, 철저하게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경제적인 효율성이 중시되는 것이다.

(다) 정치적 의사 결정은 다수결과 강제성을 전제로 하지만 시장적 의사 결정은 완전 합의와 자발성을 근간으로 한다. 투표를 통한 결정이든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든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반대를 한 소수도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시장적 의사 결정에서는, 시장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 한,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항상 모든 당사자의 완전 합의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라) 물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전적으로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자유, 책임, 경쟁, 참여, 법치 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병행하여 발전하는 속성도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 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시장경제는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요한 물질 기반을 제공하며 정치적 안정에도 기여한다.

(마)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치와 경제의 기본 골격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율과 타협과 참여의 정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자유 경쟁,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원 분배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2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정치적 의사 결정은 다수결과 강제성을 전제로 한다.
- ②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자유주의 사상을 토대로 한다.
- ③ 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를 존중한다.
- ④ 일반적으로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경제적인 효율성도 크다.
- ⑤ 좋은 경제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다.

2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일반적 인식의 문제점을 들어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② (나) : 두 방식의 차이를 밝혀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 ③ (다) : 두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결론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라) : 논의를 전환하여,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마) :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우리의 경우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28. (마)와 <보기>를 관련지어 내린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때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부 특권 집단은 각종 로비나 압력 등을 행사하고 교묘하게 여론을 조성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유도한다. 이에 비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 관심이 적으며, 이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은 국민 전체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나 시장의 원리에 따른 각종 경제적 비용과 효용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무너지게 된다.

- ① 올바른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구나.
- ②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도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거야.
- ③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들의 의식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
- ④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시장의 원리에 따른 치밀한 분석 작업도 전제되어야 해.
- ⑤ 보다 효율적인 경제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영향력이 좀 더 커져야 할 거야.

29. ㉠의 '한'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방 한가운데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다.
- ② 한여름에는 시원한 수박 생각이 간절해진다.
- ③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한가득 안고 돌아왔다.
- ④ 이번 일이 잘 풀리는 바람에 한시름을 놓았다.
- ⑤ 설을 맞아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 세로 일 미터쯤의 유리 상자들이 벽을 따라 즐비하게 세워진 그곳은 들어서자마자 썩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겨주었다. 새들의 오물이나 잠겨 있는 실내 공기 탓이었지만 냄새만으로도 이쪽 세상과 저쪽의 바깥세상을 확연히 구분짓게 한다. 그녀는 문득 남편을 생각했다. 냄새는, 특히 이런 유의 ㉔ 퀴퀴한 냄새는 언제나 남편 몫이었다. 악취가 풍겨오는 한은 어쩔 수 없노라고 그가 말하였다. 썩고 있는 쓰레기를, 막혀 있는 시궁창을 치우지 않고는 그는 견딜 수 없어했다.

그녀는 이제 조류원 안에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한다. 잠깐 사이에 후각은 마비되고 언제 냄새가 있었냐는 듯이 코는 말짱해져 큼큼거리던 것도 멈추었다.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못 견딜 일이라곤 별로 없는 것이다.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굴과 차가운 발부리만이 일렬행대로 즐비하게 늘어져 있을 뿐이다. 죽은 나뭇가지 위에 동그마니 얹혀져서 참새, 콩새, 종달새 들이 유리벽 바깥의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전깃줄에서, 때로는 ㉕ 미풍의 보리밭 이랑에서 정답게 울어주던 바깥세상의 새들과는 전혀 닮지 않은 것처럼 보임은 무거운 침묵 때문인가. 고목의 동치를 잘라 시멘트로 탄탄하게 세워두고 정돈된 가지마다엔 이파리 하나 매달리지 않았다. 새들은 두툼한 가지 끝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별안간 후두둑 날아올라 다른 가지로 옮겨 앉는다. 그리고는 이내 부동의 자세이다. 아이들은 유리벽에 매달려 새들을 유혹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도 하고 후이익 후이익 새 울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조류원의 중간쯤에서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다. 부리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 팻말을 통해 깃털의 음울한 눈매를 한 그것과 맞부딪치고 나서 그녀는 적잖이 실망을 한다.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노래를 부를 적마다 떠오르곤 했던 그 이슬 같은 느낌의 청명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감춰지거나 은유되지 않고 곧이곧대로 드러나 있는 ㉖ 사실 속의 새 앞에서 그녀는 잠시 의아해한다. 그리고 이내 깨닫는다. 노래,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탓이었다.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새로 불리워진다. ㉗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는 단지 잿빛 깃털을 가진 한 마리의 날것에 불과하였다.

“저 새가 바로 방울새란다.”

그래도 그녀는 딸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다. 한 소절 한 소절을 따라 부르게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었듯이. 간밤에 고방울 어디서 따왔니. 쪼로롱 고방울 어디서 따왔니..... 글썽, 어디서 따왔을까. 방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경주는 물었고 그녀는 방울이 있었음직한 곳을 찾기 위해 곰곰 생각해보곤 했었다.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방울을 따오지 못한 것일까. 두터운 유리벽 안에 갇혀서, ㉘ 푸른 하늘 대신에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한은 방울을 따올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경주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주 또한 방울새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노래 속에서만 있었던 새를 눈앞에 두고 아이는 쟁쟁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동굴처럼 깊게 파들어 간 조류원 안에서 아이는 시방 노래와 만나고 있는 것이다.

“아, 방울새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경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갑자기 퍼뜩 놀라 아이를 쳐다본다. 그 말이 꼭 아빠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말로 들린 까닭이었다. 한때는 함께 살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없는 아빠가 아아, 여기 동굴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아이가 소리친 줄로만 알았다.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이다. 방울새 대신 노래를 불러주면서, 방울새의 단혀진 입을 대신해 주면서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게 지.

<중략>

그 경쾌하고 단순한 노랫가락이 끌고 가는 무거운 발걸음. 쪼로롱 방울새야. 쪼로롱을 부를 때의 아이 입은 새의 부리처럼 뽀족하고 그들의 걸음은 잠깐 허둥거리다. 쪼로롱 방울새 ㉙. 발길을 가다듬으며 그녀는 ㉚ 눈꺼풀의 떨림이 시작할 조짐을 느꼈다. 파드득 떨리는 눈꺼풀. 쪼로롱 방울새야. 미끄러질 듯한 걸음. 보이는 모든 것이 파들파들 몸을 떨고 아이는 나풀거리며 달려간다.

그녀는 떨리는 눈두덩을 지그시 누르면서 내일 모레쯤에는 남편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이번에는야말로 헛손질과 얼룩진 벽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방울새가 저어기에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해도 좋다. 배고파하는 동물들의 벌려진 입을 전해주고도 싶다. 경주의 방울새 노래가 듣고 싶지 않느냐고도 물어볼 것이다.

이야기가 술술 풀려만 간다면 아니 그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㉛ 구더기의 강에 대해서도 소상히 들려줄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머리칼 깊숙이 수십 수백 마리의 구더기가 털구멍에 처박혀 몸을 오그라뜨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제법 세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야 말하지만 이 꿈을 홀로 간직하는 일이 정말 두려웠다고도 말해보자. 말이란 한 번만 눈 딱 감고 시작하면 실타래에서 풀려나오는 명주실처럼 길고도 질기게 계속될 것이었다. 한 번만 입을 열어 모음과 자음을 발음한다면, 한 번만 부리를 벌려 방울 소리를 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히 견디어 낼 것 같았다.

- 양귀자, 「방울새」 -

30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인위적인 것이다. 창공과 대지, 그리고 강과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왔던 동물들은 이제 자유를 잃고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변적 존재가 되는 과정에서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은 새로운 은유를 탄생시키게 된다. 강제에 의해 주변부로 밀려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적 공간과 동물원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① ‘조류원’의 ‘새’들의 모습은 주변부로 밀려나 갇혀 있는 자들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
- ② ‘그녀’의 남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방울새’의 의미는 암울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거야.
- ③ ‘가로 세로 일 미터쯤의 유리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새’들은 주어인 환경에 순응하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 ④ ‘간헐’의 공간으로 설정된 ‘조류원’을 배경으로 삼은 것은 ‘폴립’을 소망하는 작가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겠지.
- ⑤ ‘바깥세상’과 대비되어 있는 ‘조류원’은 인간을 일상적 삶에서 강제적으로 격리시키는 사회적 공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

3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녀’의 관찰과 그것에서 비롯된 기억과 상념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② 대화가 거의 없는 서술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녀’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 ③ 중간 중간에 삽입된 ‘방울새’ 노래는 작품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공간 이동의 경로를 따라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낳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⑤ ‘방울새의 노래’에 대한 사색을 계기로 하여 ‘그녀’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다.

32. ㉠을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써보자는 제안을 두고 토론해 보았다. 적절한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 보 기 > —

물새 같은 아이 하나
 모래 위를 달려간다
 파도 한 자락이
 아이의 눈 속으로 파고들었다
 푸른 별이 뜨고
 하얀 양떼들이 몰려왔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웃고 있었다
 바다는 세상 모르고
 즐거운 하루

- 천양희, 「자식」 -

- ① 진영 : ㉠에 나타난 ‘아이’의 순수하고 맑은 모습에 잘 어울려요.
- ② 정훈 : ㉠에 나타난 ‘아이’와 ‘그녀’의 조화로운 호흡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 ③ 상일 : ㉠에 나타난, 서사와 결합되어 있는 리듬감 있는 서술의 묘미가 사라지는 아쉬움이 있네요.
- ④ 은지 : ㉠에 나타난,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심정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 ⑤ 신영 : ㉠에 나타난 ‘그녀’의 미묘한 내면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3. ㉠과 유사한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것은? [1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4. ㉠의 발상과 의미를 참조하여 짧은 시구를 지어보았다. 적절한 것은? [1점]

- ① 참다못해 가슴 찢고 나오는 비둘기 때들 바람 속에 몸을 푸는 갈대숲
- ② 겨우내 노래하던 새 몇 백 년 그럴 양으로 성대가 더욱 트인 새여 노래여
- ③ 다투어 날다가 서로 날개를 부딪치고 떨어지는 걸 보면 새들의 노래 즐겁지 않다
- ④ 가을이 말없이 찾아와 붉은 노을 고운 하늘이 멀고 해가 저도 두견이는 아니 옵니다
- ⑤ 알알한 보석 박힌 물이랑을 잃고 도시의 가슴을 떠도는 저 새는 이제 갈매기가 아니다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왜 양지는 음지보다 따뜻할까? 태양이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어떻게 적절한 매질도 없는 우주 공간을 건너 아득히 먼 지구의 물체들을 데울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열과 빛의 정체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열소’-의 작용이라고 생각하고, 고체가 녹거나 액체가 증발하는 것은 열소와 고체 혹은 액체를 이루는 입자 사이의 화학 작용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럼퍼드와 마이어, 줄 등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열소’의 존재는 부정되고 대신 ‘열에너지’의 개념이 확립된다. 열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클라시우스였는데, 그는 기체의 열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에너지이며, 따라서 온도는 기체 분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더해 맥스웰이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분포함을 밝힘으로써, 결국 열은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에너지’임이 밝혀졌다. 모든 물체의 입자들은 평균 위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진동 운동이나 회전 운동을 하고 있으며, 온도는 바로 이 운동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빛의 정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전자기 이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이는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전자기파의 존재는, 전류(전기장)가 자기장을 만들어 냄을 밝혀낸 앙페르의 실험과 자기장에서 전류가 만들어짐을 확인한 패러데이의 실험, 그리고 이를 집대성한 맥스웰의 이론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해졌다. 앙페르는 나란히 놓인 도선에 전류를 통과시키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과 도선을 원통형으로 감아서 만든 코일 - 이를 '솔레노이드'라고 한다. - 에 전류를 흘리면 자성이 강한 자석이 됨을 확인하였고, 패러데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코일에 자석을 통과시키면 자석의 자기장의 변화에서 전류가 생겨남을 확인하였다.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또 자기장은 다시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맥스웰은 이러한 실험의 결과들을 정리하여 '맥스웰의 방정식'이라는 이론을 세웠으며, 이 이론을 통해서 전자기파의 존재가 추론될 수 있었다.

도선에 갑자기 전류를 통하게 하거나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키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나는데, 이 자기장은 2차적인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시 2차적인 자기장을 만든다. 이처럼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이 다시 전기장을 만드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파동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전자기파이며, 맥스웰은 이 파동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동일하다는 계산을 해 낸 후 "빛 자체도 일종의 전자기파이다."라는 천재적인 결론을 내린다. 소리처럼 물질이 실제로 떨리는 역학적 파동과는 달리,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연속적인 변화를 반복하면서 전파해 가는 전자기 파동인 것이다. 이후 과학자들에 의해 전자기파가 매질 없이도 전파된다는 것까지 확인되면서, 햇빛이 텅 빈 우주 공간을 건너올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 태양에서 오는 것은 열의 입자가 아니라 ㉡ 전자기파이며, 이것이 어떤 물체에 닿았을 때 그 물체를 진동으로 간섭한다. 그리고 이 진동이 물질의 입자들과 상호 작용하여 그 ㉢ 입자들의 운동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물질의 온도를 높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태양의 빛은 아무런 매개물 없이 우주를 건너와 지구의 물체를 데울 수 있는 것이다.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현상의 과학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이 형성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새로 발견된 과학 원리의 응용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 ④ 상반된 관점의 해석을 종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⑤ 기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6. 밑줄 친 부분들의 관계가 ㉠, ㉡, ㉢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현우가 무심코 던진 말이 지수를 슬픔에 빠지게 했다.
- ② 여자는 결혼으로 아내가 되고 출산으로 어머니가 된다.
- ③ 좋은 뜻이 있어도 좋은 뜻이 없으면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 ④ 훌륭한 공격수만이 아니라 훌륭한 수비수도 있어야 좋은 팀이 만들어진다.
- ⑤ 생산은 소비를 유발하고, 소비는 투자를 유발하며, 투자는 생산을 가능케 한다.

37.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소개된 맥스웰의 태도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맥스웰은 처음에, 빛의 전자기적 파동에서 '에테르'가 매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 이전에 호이겐스에 의해서 그 존재가 주장되었던 에테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공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는 신비로운 물질로 인정되고 있었으며, 맥스웰 역시 이것이 빛의 파동을 전파하는 매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 ① 상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발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계속 개선해 나가려 했다.
- ② 다양한 사례에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이 타당함을 증명하려 했다.
- ③ 자신의 이론과 상반되는 이론을 끌어들이 자신의 이론을 확장하려 했다.
- ④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가설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려 했다.
- ⑤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과장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이 지닌 효용성을 강조하려 했다.

38. <보기>는 어떤 자석에 대한 설명이다. 위 글의 내용을 참조할 때, 가장 적절한 설명은? [1점]

< 보 기 >

강철이나 순철로 된 철심(鐵心)을 코일로 둘둘 감고,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N극과 S극을 갖춘 자석이 만들어진다. 이 철심의 양 끝이 가까워지도록 말굽 모양으로 구부리면 양 극 사이에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더욱 강한 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석은 산업 현장에서 무거운 철판을 들어서 옮기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 ① 자기장에서 전류가 만들어짐을 확인한 패러데이의 실험 결과를 응용한 것이다.
- ② 철심에 코일을 감은 것으로 보아, '솔레노이드'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 ③ 철심을 구부린 것은 양 극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 ④ 철심에 생기는 진동을 억제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 ⑤ 코일 주변에 생긴 자기장이 철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9. 위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태양 이외에도,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물체라면 다른 물체를 데울 수 있겠군.
- ② 어떤 물체의 한 쪽을 데우면 다른 쪽도 뜨거워지는 것도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전달로 이해하면 되겠어.
- ③ 열의 정체를 모르던 시절에도 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군.
- ④ 소리도 빛처럼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니까, 매질이 없어도 먼 거리에까지 전파될 수 있을 거야.
- ⑤ 물체 내의 입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열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어.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광고는 수용자로 하여금 결핍감을 느끼게 하면서 소비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 교묘한 설득적 장치들을 활용한다. 광고에서 언어적인 부분을 ‘문안’이라 하는데, 흔히 ㉠ AIDMA 즉 ‘주목(attention), 흥미(interest), 욕망(desire), 기억(memory), 행동(action)’을 그 기본 요건으로 든다. 광고 생산자는 어떠한 정보를 수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방식으로 전달하면서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기억되도록 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상품 구매라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고에서의 언어 표현은 일상적인 언어보다 음운, 어휘, 문체 등의 측면에서 훨씬 치밀하게 의도되고 조직화된 모습을 보여 주게 된다.

광고 언어에서 먼저 음운적 특징을 보면 운(韻)의 활용이 가장 두드러진다.

- (1) 가. 결면 걸리는 걸리버
나. 머릿결인가 비단결인가

광고 문안에서 광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 제시하는 부분을 ‘표제’라고 하는데, (1-가)는 두운의 효과, (1-나)는 각운의 효과를 살린 표제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수용자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하는 의도적인 표현이다.

광고에 쓰이는 어휘의 최근 경향은 동음 관계나 다의 관계 등 단어의 의미 관계를 교묘하게 활용한 언어유희가 많고 신조어의 사용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 (2) 가. ㉡ 우리 사이는 초록 사이다
나. 가격 가격 절단 “아우~ 아파라. 너무 짭랐나?”
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우리 보험이 함께 합니다.

㉡(2-가)는 사이다 음료 광고 문안인데, 동음 관계에 있으면서 의미와 문법적 지위가 서로 다른 요소들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참신한 인상을 갖도록 하였고, (2-나)는 ‘할인’ 대신 더 자극적인 ‘절단’을 사용하고 나아가 “아우~ 아파라. 너무 짭랐나?” 하는 익살까지 부리고 있다. (2-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을 약간 바꿔 새 어휘를 만들어 쓴 예이다. 이와 같은 언어유희나 신조어들은 유행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도 하면서 현재 우리의 언어생활의 한 단면을 이룬다.

광고에 사용되는 언어는 대체로 여러 수사 기교를 동원하는데, 여기서는 문장 유형 측면에서 문체적 특징을 살펴보자.

- (3) 가. 귀하의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나. e마크가 없다면 컴퓨터 사지 마십시오.
다. 발모제로 남편을 바꿉시다.
라. 어머니, 지금 드시는 칼슘이 빠로 갑니까?
마. “올 추석에도 내려오느라 고생하겠구나!”

(3-가)와 같은 평서문은 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서술을 통해 수용자를 설득하고, (3-나)와 같은 명령문이나 (3-다)와 같은 청유문은 수용자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구실을 한다. ㉢(3-라)는 의문문이 광고에 쓰인 예인데, 그 실제적인 역할은 명령문이나 청유문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무엇인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를 설득하여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3-마)의 감탄문은 수용자의 정서에 공감을 불러일으켜 간접적으로 상품 구매에 이르도록 의도된, 세련된 설득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40. 위 글에서 설명한 광고 언어의 특성과 가장 관련 있는 진술은?

- ① 한 민족의 언어는 곧 그 민족의 정신이다.
- ②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을 반영한다.
- ③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④ 언어는 표현을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면 효과가 달라진다.
- ⑤ 언어는 외부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반영한다.

41. 새로 개발한 약품의 광고 문안을 작성하고자 할 때, ㉠과 관련하여 제시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A 주목] : 글꼴을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디자인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도록 하자.
- ② [I 흥미] : 광고를 본 수용자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게 언어유희를 이용한 표제를 만들자.
- ③ [D 욕망] : 광고를 본 수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의심하면서 건강을 확실히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자.
- ④ [M 기억] : 수용자가 약품명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약품명에 쓰인 음운을 문안에서 반복 활용해 보자.
- ⑤ [A 행동] : 구매자가 약을 잘못 복용하여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문안에 정확한 복용 방법을 제시해 주자.

42. ㉡에 비추어 볼 때, ㉢과 가장 비슷한 방식의 광고는?

- ① (대학교 광고에서) 세상은 좁게, 세계는 넓게!
- ② (우유 광고에서) 그 우유가 그 우유? 그건 아닙니다.
- ③ (자동차 광고에서) 달릴 때는 자유, 머무를 때는 여유
- ④ (음료 광고에서) 솔빛 솔바람 솔내음, 솔씩 추출물 함유
- ⑤ (통신사 광고에서) 나는 ADSL 2000! 뛰는 ADSL 위에 나는 ADSL 2000!

43. <보기>는 ㉡과 관련하여 탐구한 결과이다. 다음 각 의문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점]

< 보 기 >

- 의문문에는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 요청 등의 효과를 내는 수사 의문문이 있다.
- 문장 혹은 발화는 전송자와 수신자, 장면 등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의미가 결정된다.

- ① (지각한 부하 직원에게) “지금 몇 시입니까?” : 지금 시각에 대한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 ② (신년 경영자 회의에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이다.
- ③ (밤늦게 들어온 아들에게) “오늘 아무 일 없었니?” : 판정 의문문이지만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④ (도서관에서 음악 듣는 사람에게) “소리를 조금만 낮춰 주시면 안 될까요?” :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의 뜻을 나타낸다.
- ⑤ (책 제목으로) “당신의 우리말 실력은?” : 대답을 요구하기보다 수신자 자신의 수준을 돌아보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44 -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날 밤 대군이 손님을 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김 진사의 시재(詩才)를 칭찬하며 그가 지은 시 두 수를 손님에게 보이니 모두 경이로운 눈으로 구경하고 칭찬을 아니 하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그 자리에서 대군이 사람을 보내어 진사를 맞아 왔다. 당(堂)에 오르는 모양을 본즉, ㉠ 무슨 근심이 있는지 용모가 초췌하여 풍정이 사라지고 아주 탄 사람 같았다.

대군이 “무슨 병이 있는가? 약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아닌가?” 하고 희롱하니 앉아 있는 모두가 웃었다.

“한미한 유생이 외람되이 대군의 농을 받음인지, 복이 지나고 화가 당도하였는지 근일에는 식사도 전폐하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매 왔습니다만…….”

김 진사가 그 중 나이 어리므로 말석에 앉았으며 다만 한 벽이 가리웠더라. 밤이 이미 깊으며 손님들이 다 취하여 누웠거늘, 첩이 벽 사이로 엿보니 진사 또한 그 뜻을 알고 귀통이를 향하여 앉거늘, 첩이 편지를 던지니 진사가 집어 가지고 집에 들어가 떼어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고, 생각하는 정이 전보다 더하여 능히 목숨을 보존치 못할 듯한지라. ㉡ 이에 답장을 써 부치고자 하나 청조(靑鳥)가 없느니라 홀로 가슴만 태울 뿐이더니,

마침 동문 밖에 한 무녀가 있어 영리함으로써 이름을 얻고 궁중에 출입하여 다닌다는 말을 듣고 반가이 여겨 그 집을 찾아가니, 그 무녀가 서문이 채 못 되고 자못 자색이 아름다우나 일찍이 혼자되었더니, 진사가 이르는 것을 보고 술과 안주를 잘 차려 대접하거늘 진사가 잔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되, “금일은 바쁜 일이 있으니 명일 다시 오마.” 하고 가더니, 다음 날 또 간직 대접이 여일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또 다시 “명일 오마.” 하고 돌아가니, 무녀가 그 행색을 괴이히 여겨 ㉢ 의심을 하나 그 용모의 탈속함과 풍채의 준수함을 보고 마음속에 기뻐하더라.

이튿날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교태를 다하여 단장을 꾸미고 화려한 요며 구슬 방석을 두루 벌여 피고 계집종에게 “문 밖에 가 기다려라.” 하더니, 이윽고 진사가 또 이르거늘 무녀가 웃고 반가이 맞아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진사가 눈을 들어 그 단장의 화려함과 늘어놓은 것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속에 괴이히 여기더니, 무녀 가로되, “오늘 저녁이 어떤 저녁이건대 이러한 옥인(玉人)을 보느뇨?” 한대, 진사가 뜻이 다른 데 있는지라, 그 말에 대답지 아니하고 ㉣ 슬픈 표정으로 있거늘, 무녀가 또 돌우어 가로되, “과부의 집에 나이 어린 사람이 어찌 왕래하기를 꺼리지 아니하느뇨?” 진사 가로되, “무녀가 만일 신령한즉 어찌 나의 온 뜻을 알지 못하리오.” 하거늘, 무녀 더욱 괴이히 여겨 즉시 신단에 나아가 점쳐 보고 나서 말하되, “낭군아, 진실로 가히 아깝도다. 행하지 못할 계획으로써 ㉤ 이루지 못할 일을 하고자 하는도다. 다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삼 년이 미치지 못하여 황천 사람이 되리도다.”

진사가 울며 왈, “그대 비록 이르지 아니하여도 내 또한 아는 일이라.” 하고, 인하여 전말을 자세히 일러 왈, “㉠ 마음속의 원이 맺힌지라. 백약으로 풀지 못하리도다. 다만 바라나니 그대로 인하여 내 편지 한 쪽만 전하여 주면 죽더라도 또한 영광이 되리도다.” 무녀 가로되, “천한 무녀가 비록 신을 모시는 일로 인하여 간혹 출입함이 있으나, 부르는 명이 없으면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그러나 낭군이 저토록 간청하니 낭군을 위하여 한

번 들어가 보리이다.” 진사가 기뻐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내어주며 당부하되, “삼가 그릇 전하여 화를 짓게 말라.”

무녀가 응낙하고 받아 가지고 궁에 들어가니, 궁중 사람들이 다 그 음을 괴이히 여기거늘 무녀가 다른 말로써 대답하고, 인하여 틈을 타 눈 주어 첩을 데리고 후정(後庭) 그윽한 곳에 가 편지를 주거늘, 첩이 받아 가지고 방에 돌아와 떼어 보니 하였으며,

‘그대를 한 번 봄으로부터 마음이 날고 혼이 흩어져 능히 뜻을 정하지 못하고 매양 서쪽을 향하며 거의 창자가 끊어지도다. 벽 틈으로 주던 글을 공경하여 받아 보기를 다 못하여 가슴이 막히고 눈물이 글자를 적는지라 잠을 능히 이루지 못하고 밥을 능히 내리지 못하여 병이 골수에 들매 백약이 무효한지라. 다만 저승에서 만나기를 바라노라. 하늘이 굽어 살피시고 귀신이 도와주셔서 생전에 만나 ㉥ 이 환을 씻게 하시면 백골난망이라.’ 하였더라.

<중략>

첩이 보기를 마치매, 소리 끊이고 기운이 막혀 입으로 능히 말을 못하고 눈으로 능히 보지 못하여 눈물이 다하매 피가 나는지라. 사람이 알까 병풍 뒤에 앉아 종일 흐느끼고 그 후로부터 더욱 잇을 길이 없어 미친 듯 취한 듯하여 자연 얼굴과 말에 나타내매 대군이 의심하고 사람의 괴이히 여김을 면치 못하였노라.

- 작자 미상, 「운영전」 -

* 청조(靑鳥) : 반가운 사자(使者)나 편지를 이르는 말.

44. 위 글을 읽으며 떠올린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 진사가 ‘첩’의 편지를 읽고 있는 모습
- ② 김 진사가 지은 시를 대군이 보고 있는 모습
- ③ 무녀가 단장을 하고 김 진사를 기다리는 모습
- ④ 대군의 심부름꾼이 김 진사의 집을 찾는 모습
- 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첩’과 김 진사가 만나는 모습

45. ㉠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성어는? [1점]

- ① 노심초사(勞心焦思) ② 좌불안석(坐不安席)
- ③ 절치부심(切齒腐心) ④ 은인자중(隱忍自重)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46. ㉠~㉣ 중, ㉡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 위 글에 나타난 ‘김 진사’의 심정을 (가)~(마)와 같이 표현했다고 할 때, 이를 참조하여 47번과 48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마음을 아시는 사람이라면
 시름이 그득하다 하시겠지만
 내 마음속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엇 땀에 그러느냐 하시리리라

- (나) 뜻밖에 임의 글을 반갑게 받아 보니
 곳마다 눈물 흔적 글자가 흐렸고야
 달 밝고 고요한 밤엔 생각 더욱 설위라
- (다) 비는 온다마는 임은 어이 못 오르고
 물은 간다마는 나는 어이 못 가느고
 오거나 가거나 하면 이대도록 그리라
- (라) 낙엽에 두 자만 적어 서북풍에 높이 띄워
 월명 장안(月明長安)에 임 계신 데 보내고자
 임께서 보오신 후(後)면 임도 반겨하시리라
- (마) 사랑 모여 불이 되어 가슴에 피어나고
 간장(肝腸) 썩어 물이 되어 두 눈으로 솟아난다
 일신(一身)이 수화상침(水火相侵)*하니 살동말동하여라

* 수화상침(水火相侵) : 매우 곤란한 환경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대군의 물음에 대한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나)는 ‘첩’의 편지를 받고 난 후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 ③ (다)는 무녀의 유혹에 대한 거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 ④ (라)는 ‘첩’에게 편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 ⑤ (마)는 ‘첩’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48. (가)~(마)의 시어를 위 글과 관련하여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시름’은 ‘첩’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 ② (나)의 ‘밤’은 ‘첩’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는 배경이다.
- ③ (다)의 ‘물’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해 주는 소재이다.
- ④ (라)의 ‘서북풍’은 무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 ⑤ (마)의 ‘수화상침’은 김 진사가 처한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49-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장르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익명의 인물들과 소소한 사건들을 묘사한 그림이다. 그런데 장르화는 대체 어떻게 해서 장르화로 불리게 된 것일까? 17세기에 들어와 서양에서는 회화의 주제를 구분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때 역사화와 역사화 이외의 장르를 엄밀하게 구분하였는데, 역사화 이외의 장르에 해당하는 그림 전반을 가리켜 ㉠ 장르화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등을 더욱 확실하게 구별하는 관행이 정착됐고, 끝내 아무런 이름을 얻지 못한 나머지 그림들은 계속 ㉡ 장르화로 남게 됐다.

장르화는 일상생활과 풍속을 묘사한 그림으로, 당대의 역사, 문화, 생활, 미의식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강한 호소력을 지니며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풍속화와 유사하다. 또한 예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소재를 포착하여 솔직하고 재치 있게 표현한 장르화는 해학과 풍자, 익살로 충만하다는 점에서도 우리 풍속화와 유사

하다. 장르화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의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 웃음을 자아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비정상적인 인간 군상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해학, 풍자, 익살을 느낄 수 있다.

어수룩해 보이기도 하고 소박해 보이기도 하는 장르화가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게 된 것은, ㉢ 삶에 대한 진솔한 이해와 그것을 유머러스하게 드러내는 능력 때문이다. 특히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고상하지 않아도 진실하다. 그만큼 우리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준다. 물론 그 감동의 밑바닥에서 때로 삶의 하잘것없음과 비참함을 토로하는 광경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우리는 현실의 비극에 대해 새삼 깊이 사유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비극적으로만 그려지는 않는다. 이런 현실을 인간적인 풍미와 웃음으로 감싸안는 해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르화에서의 해학은 사실 일정한 도덕적 관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장르화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소품에 유의하면 그 안에 담긴 도덕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 부르주아 시민 사회가 성장하면서 장르화는 시민들의 근면한 생활이나 노동 윤리 등 합리적인 생활 태도를 강조하고 허례허식과 부도덕한 삶을 비판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시민적 윤리의 확산을 도왔다.

장르화가 등장하기 전에는 종교나 신화, 역사 같은 것만을 가치 있다고 여겼다. 세속적인 일상생활이란 아무런 위대성과 숭고미를 머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장르화를 그렸던 화가들은 가치 있는 것이 일상 저 너머가 아니라 일상 속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삶의 의미를 삶 그 자체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서양미술사에서 장르화가 주목을 받은 것이다.

4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대상의 의의를 밝히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② 대상의 미적 효과를 분석하여 그 가치를 밝히고 있다.
- ③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며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 ④ 용어의 유래를 밝혀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유사한 대상과 비교하여 대상의 특성을 확인하고 있다.

50. 단어의 의미 변화 양상이 ‘㉠→㉡’와 가장 유사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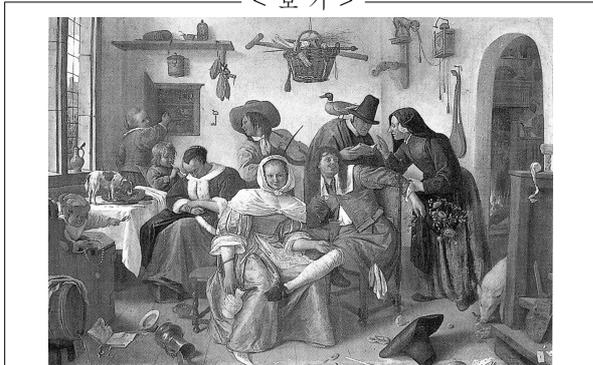
- ① ‘얼굴’은 원래 ‘몸 전체의 모습이나 형체’를 나타내는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 ② ‘영감’은 원래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벼슬을 한 지체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남자 노인’을 두루 가리키게 되었다.
- ③ ‘인정’은 예전에 ‘벼슬아치들에게 물려 주던 선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 ④ ‘왕’은 원래 ‘군주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일정한 분야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⑤ ‘지갑’은 원래 ‘종이로 만든, 물건을 담은 작은 상자’를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가죽이나 비닐, 형질 따위로 만든 것들도 의미하게 되었다.

51. 다음 중, ㉠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1점]

- ① 보리밥 꽃나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긋 뽕가의 슬카 지 노니노라. / 그나쁜 여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 ② 땀은 듯는 대로 듯고 뱃슨 쫄 대로 쫄다. / 청풍의 옷깃 열고 긴 파람 홀리 볼 제, /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드시 머 무는고.
- ③ 바람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 찬 기운 새여 드러 잠든 매화(梅花)를 침노(侵擄)한다. / 아무리 일우려 하인들 봄 뜻이야 아슬소나.
- ④ 청산(靑山)은 옛데하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 유수(流水)는 옛데하야 주야(晝夜)에 굶디 아니하는고. /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靑)호리라.
- ⑤ 개를 여라쁜이나 기르되 요 개갓치 알미오랴. / 뉘은 님 오머는 꼬리를 뽕헤 치며 뛰락 나리 뛰락 반겨서 내닷고, 고은 님 오머는 뱃발을 버둥버둥 머르락 나으락 강강 즈저서 도라가게 한다. / 선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라.

52.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그림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번잡해 보이는 실내에서 값비싼 의투를 입은 한 여인이 앉아서 즐기고 있는 사이, 집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된다. 하지만 여인은 여전히 잠에서 깨어날 줄 모른다. 뒤쪽의 아이는 곰방대를 물고 어른 흥내를 내고 있고, 그 아이의 아버지인 듯한 남자는 화면 중앙에서 하녀에게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 그림의 주제와 관련하여 화가는 “풍족할 때 조심하라. 그리고 회초리를 두려워하라.”라는 당시 네덜란드의 속담을 그림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놓인 석판에 써 놓았다.

- ①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취했다는 점에서 이 그림은 장르화로 분류할 수 있을 거야.
- ② 화면 속 인물들의 비정상적인 모습과 우스꽝스러운 행동에서 해학과 풍자, 익살을 느낄 수 있어.
- ③ 석판의 문구와 그림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작품은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 ④ 천장에 매달린 바구니의 갈과 목발은 ‘징벌’을 상징한다고 하니까, 석판 문구의 ‘회초리’와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어.
- ⑤ 안정감을 주는 구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큰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거야.

【53-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자】 (혼절하듯 생모를 껴안는다.) 어마마마. 어인 일이시오. 실성을 하시었소.

【선회궁】 세자보다 세손을 보전함이 먼저 일이라 과히 서운해 하지는 마시오.

(검은 우산을 편다. 안에서 가리개 모양 까만 천이 늘어져 생모를 받치까지 둥그렇게 감싼다. 흡사 검은색의 종과 같다. 그 모양으로 한편에 비켜선다. 송명흠이 세손을 모시고 든다. 세자가 반겨할 새도 없이 영조가 뒤쫓아 들면서 대로하여 소리친다.)

【영조】 너 별군직은 세손을 업어 모시고 밖으로 나가거라.

【세자】 ㉠ 부모 모르는 것이 자식은 알라. 데리고 나가거라.

【영조】 어서 댈시고 나가거라. (송명흠이 나간다.) 모두 물러가거라. 별군직은 아무도 들지 못하게 하라. 어기면 그 자리서 베리라. (세자는 그 자리에 혼절해 쓰러진다. 포도대장 구선복이 보인다.)

【선복】 이 나라 신하된 사람으로, 저하가 목을 매면 풀어줄지언정 졸라맬 사람은 없습디다. (단호하게 나선다. 무장다운 결기가 느껴지는 목소리다.) 이렇게는 십 년이 지나도 끝이 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뉘주를 내거라. (별군직 무사가 뉘주를 내다 놓는다.)

【영조】 내가 내 손으로 잡아 가두란 말이나.

【선복】 세자 저하께서 스스로 들라 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소신들께 거행토록 명하시오.

(세자가 흠칫 상체를 세운다. 뉘주를 본다. 영조와 구선복을 본다. 생모의 모습을 본다. 뉘주 속을 들여다본다. 까치 소리가 들린다. 한편에 흥씨가 가면을 쓰고 그림자처럼 서 있다.)

【세자】 ㉡ 아버님 아버님. 잘못하였으니 이제는 하라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리 마옵소서.

【영조】 네가 못하겠다면 저것들을 시키라.

【세자】 (잠시) 살아 무엇하리. (흥씨에게 말하듯 중얼거린다.) 아마도 무사치 못할 듯하니 어찌할꼬. 왜 이럴까. 세손을 귀여워하시니 세손이 있는 이상 날 없이한들 관계할까. ㉢ 세손이 내 아들인데 부자가 화복(禍福)이 같지 않으니 어찌하겠소. 두고 보소. 자네하고 자식들은 예사롭고 나만 병이 이리하여 어디 살게 두겠는가. 아무래도 이상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영조】 너 별군직은 동궁의 내관 박필수, 기생, 별감, 장인, 무녀 — 저 몹쓸 것하고 가까이 지낸 액속들을 모두 끌어내다가 처단하라. (구선복이 물러나고 세자가 체념한 듯 뉘주 앞에 선다.)

【세자】 나를 도우라. (별군직 무사가 세자가 던지고 오르게 엎드린다. 흥씨를 본다.) 자네는 잘 살게 하겠네. (뻔히 보고 무슨 말을 하는 듯 입만 달싹거리다가 뉘주 속으로 사라진다.)

【영조】 못을 치거라.

(별군직 무사들이 달궁질하듯 발소리를 내며 처형당한 액속들의 시체로 뉘주를 덮는다. 시체 덮이는 중에 흥씨의 소리 들린다.)

【흥씨】 영조 38년 윤오월 이십일 신시(申時)쯤 폭우가 내리고 뇌성 도(到)하니 평시 뇌성을 두려워하시던 일이 생각나 어찌 되신고 하는 생각 차마 형용할 수 없더라. 내가 따라 죽어서 이 모두 모르는 것이 옳되 세손으로 차마 결단치 못하였더라. 만만바의 기궁 흥측함을 서러워할 뿐이더라. (잠시)

【영조】 며칠 지난 줄 알겠느냐. (뉘주 속에서 손이 나와 이레를 가리킨다.) 이레. 더 견디거라. 네놈이 견디마고 했으니 견뎌봐. 견뎌 내거라. 벼락을 맞기 전에야 천둥이 까짓것 무어란 말이나.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거라. 아니 소리를 쳐라. 천둥보다 더 크게 버럭 소리를 질러. 나를 따라 해라. 내 모양으로 질러. 이놈.
 ㉠ 네가 효복*과 저장*을 만들어 토굴 속에 넣어 두었다고 하더라. 까닭이 무엇이나. (뒤주 속에서 번기로 넣어 준 놋대야 치는 소리가 들린다.)

【세자】 우레다 우레.

【영조】 이놈이 별이 이다지 쟁쟁한데 우레가 어딴어 이놈아. 내가 또 누구의 구원을 받으려고 나간단 하느냐. 내가 죽으면 삼백 년 종사가 망할 것이나.....

【세자】 ㉠ 네가 죽으면 종사는 보전될 것이다 이놈아. 종사는 보전돼.

(세자의 대꾸를 들은 영조가 황망히 칼을 뽑아 뒤주 속을 찔러댄다. 분을 이기지 못한 영조가 별군직한테 명한다.)

【영조】 뗏장을 덮어라. (별군직에 의해 뒤주가 시체로 덮인다. 별이 따갑다. 영조는 뒤주 위로 올라가 간간히 솟아오르는 세자의 손짓을 쫓아 칼을 쭈서 박는다.) 내가 죽으면 삼백 년 종사가 망할 것이나 네가 죽으면 종사는 보전될 것이다 이놈.

- 오태석, 「부자유친(父子有親)」 -

* 효복 : 상복(喪服).

* 저장(直杖) : 상제(喪制)가 질던 검은색의 대지팡이.

53 <보기>는 위 글의 창작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와 대비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덕성함으로 오라시는 동궁의 말씀에 내가 가보니 그 장하신 기운과 언짢은 말씀도 안 하시고 고개를 숙여 깊이 생각하시는 양 벽에 기대어 앉으셨는데, 안색이 놀라서 핏기가 없이 나를 보셨다. <중략>

숭문당(崇文堂)에서 회녕전 나가는 건복문 밑으로 가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대조께서 칼 두드리는 소리와 동궁께서, “아버님, 아버님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라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리 마소서.” 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를 들으니 내 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지고 앞이 안 보이니 가슴을 아무리 두드린들 어찌하리오. 당신의 용력(勇力)과 장기(壯氣)로 궤에 들어가라 하신들 아무쪼록 들어가지 마실 일이지, 어찌하여 들어가셨는가. 처음엔 뛰어나오려 하시다가 이기지 못하여 그 지경에 이르시니 하늘이 어찌 이토록 하였는가.

- 혜경궁 홍씨, 「한중록(閑中錄)」 -

- ① 위 글은 ‘한중록’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작가가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한 것 같다.
- ② 위 글에서는 <보기>보다 ‘영조’와 ‘세자’의 갈등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어.
- ③ <보기>에서 아내를 걱정하던 ‘세자’가 위 글에서는 오히려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 ④ <보기>에 비해 위 글에는 남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홍씨’의 심정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
- ⑤ <보기>로 보아, 위 글에서 ‘홍씨’가 ‘가면을 쓰고 그림자처럼 서 있는’ 모습은 사건을 전달하는 기능을 고려한 장치라고 할 수 있어.

54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종사’를 보전하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는 영조의 모습에서 권력의 비정함을 엿볼 수 있어.
- ② ‘검은 우산’을 쓰고 ‘검은색의 종’ 모양으로 서 있는 생모의 모습에서 아들의 재생을 갈구하는 심정을 느낄 수 있어.
- ③ 영조와 세자 사이의 갈등은, 아들이 아버지를 적대하는 본능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 ④ 생명 유지에 필요한 곡식을 넣어 두는 뒤주에 세자를 가두어 죽이는 이야기는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어.
- ⑤ 뒤주를 시체로 뒤덮는 장면은, 기괴한 이미지를 써서 공포를 유발하는 그로테스크의 기법과 관련되는 것 같다.

55 위 글을 연극으로 상연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뒤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관객들에게 뒤주의 모습이 잘 보이도록 설치해야겠어요.
- ② 날짜의 경과는 등장인물들의 언행을 통해 드러나니까 따로 무대 장치를 이용해서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 ③ 영조는 세자를 대할 때에는 엄하다가도 신하들을 대할 때에는 부드럽어집니다. 그러니까 표정 연기에도 신경 써야 하겠어요.
- ④ 영조와 세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몸짓도 좀 과장하고 목소리도 격앙된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 ⑤ 무대는 세자의 두려움이 암시될 수 있도록 꾸미는 게 좋겠어요. 세자의 주변 조명을 좀 어둡게 하는 게 어때요?

5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자조(自嘲)의 심정이 내포되어 있다.
- ② ㉡ : 궁지에 몰린 세자의 나약한 모습이 보인다.
- ③ ㉢ : 운명에 저항하려는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④ ㉣ : 영조와 세자의 갈등의 원인을 암시한다.
- ⑤ ㉣ : 영조의 말을 흉내 낸 표현이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레이저(LASER)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방사선 복사를 유도하여 빛을 증폭한다'는 뜻이다. 레이저는 원래 빛이 증폭되는 물리적 현상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레이저광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레이저의 개념은 1951년 찰스 타운스가 아인슈타인의 방사와 생성 이론을 기초로 창안하였으며, 1960년 테오도르 메이먼은 최초로 레이저 장치를 구현했다.

(나) 물질의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각각의 에너지 준위를 따라 배열되어 있는데, 에너지의 준위는 에너지의 계단이나 사다리에 비유될 수 있다.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 전자가 **㉠** 보유하는 에너지도 높아지며, 보유 에너지가 낮은 전자부터 원자핵에 가까운 에너지 준위를 채워나간다. 전자가 외부의 에너지를 **㉡** 흡수하면 자신의 자리를 **㉢** 이탈하여 바깥쪽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전자가 자신의 자리에 있을 때를 '바닥 상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갔을 때를 '들뜬 상태'라고 한다. 들뜬 상태의 전자들은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때는 빛 등의 에너지를 **㉣** 방출하게 된다.

(다) 최초의 레이저 장치를 만든 메이먼은 루비의 전자를 이용하였다. 루비는 그 특성상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될 때 그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었다. 메이먼은 빛을 쬐어 루비의 특정 전자들을 들뜨게 함으로써 바닥 상태의 전자수보다도 들뜬 상태의 전자수를 많게 만들었다. 이런 상태를 **㉤** 조성해 주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들뜬 전자가 자연스럽게 원래의 준위로 되돌아가면서 빛을 내고, 다른 들뜬 전자에서도 같은 과정을 가진 빛이 차례차례 발생한다. 그러는 동안 들뜬 물질의 양쪽에 설치해 둔 거울 2개 사이에서는 생성된 빛이 그대로 반사되면서 몇 번씩 왕복하며 다른 들뜬 전자들이 빛을 방출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빛은 자꾸만 증폭(增幅)된다. 이 때 2개의 거울 중 1개의 거울은 일부의 빛을 투과할 수 있게 하여 거울 사이에서 증폭된 빛의 일부가 외부에 레이저광선으로 발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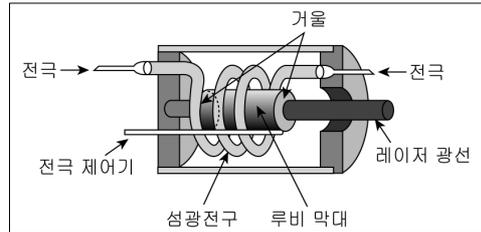
(라) 메이먼의 루비 레이저가 개발된 이후 기체, 액체, 고체, 반도체 등의 매질로 많은 종류의 레이저가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특성은 다양하다. 하지만 모든 레이저광선은 기본적으로 단일한 파장과 방향성을 가진 광자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완벽하게 직진하므로 다른 방향으로 퍼지지 않는다. 또한 렌즈를 통해 극히 작은 점에 빛을 수렴시킬 수 있다. 이는 다양한 광자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방향으로 쉽게 퍼지며, 렌즈를 통해서 쉽게 수렴이 되지 않는 보통의 빛과 크게 다른 점이다.

(마) 이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레이저광선은 보통의 빛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 내고 있다. 공중에 원하는 글자나 멋진 그림을 펼쳐 보이고, CD의 음악을 재생한다. 제조업에서는 레이저광선으로 다양한 물체를 정밀하게 자르거나 태우고, 의사는 환자의 수술에 레이저광선을 활용한다. 단위 시간에 엄청난 양의 통신 정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통신 매체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레이저는 현대의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최첨단 기술로 자리 잡았다.

57.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 레이저의 개념
- ② (나) - 레이저광선의 구조
- ③ (다) - 레이저광선의 발생 과정
- ④ (라) - 레이저광선의 특성
- ⑤ (마) - 레이저광선의 응용

58. 다음은 최초의 레이저 장치 모형이다. 위 글을 통해 볼 때, '섬광전구'의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전자의 움직임을 둔화시킨다.
- ② 전자를 원자핵에 가깝게 이동시킨다.
- ③ 전자가 들뜬 상태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준다.
- ④ 전자가 원래보다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게 한다.
- ⑤ 전자 하나당 발생하는 빛의 양과 강도를 증폭시켜 준다.

59. ㉠~㉤를 문맥에 맞게 바꿀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보유하는 → 이끌어내는
- ② ㉡ : 흡수하면 → 받아들이면
- ③ ㉢ : 이탈하여 → 벗어나
- ④ ㉣ : 방출하게 → 내보내게
- ⑤ ㉤ : 조성해 → 만들어

60. 위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레이저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이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잖아.
- ② 기술자가 과학을 완전히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니지. 물리 현상을 몰랐더라도 레이저는 발명될 수 있었을 거야.
- ③ 기술은 자연에 인공을 가미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어. 레이저도 물리적인 빛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것이니까.
- ④ 레이저에서 빛이 증폭되는 과정은 한두 사람의 열렬한 응원이 모든 관중의 열렬한 응원으로 확산되는 것과 흡사해.
- ⑤ 기술은 여러 사람의 직·간접적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것 같아. 타운스가 개념을 제안하고 메이먼이 이를 구체화했잖아.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